

우리 스터디가 딥러닝 이미지 분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감정은 기대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미지를 컴퓨터가 '본다'는 개념이 와닿지 않아 혼란스러웠지만, 점차 CNN(합성곱 신경망) 구조와 학습 과정을 이해하면서 신비롭고도 흥미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모델이 점차 이미지를 학습하고 분류 성능이 개선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기술적 진보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직접 모델을 돌리고, 예측 결과를 하나하나 확인할 때의 짜릿함은 잊을 수 없습니다. 초기에는 분류 정확도가 낮아 아쉬움도 많았지만, 매번 실험을 통해 결과가 조금씩 개선될 때마다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함께하면서, 모두가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까?"라는 기대감 속에 더욱더 AI와 딥러닝에 대한 열정을 키워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지 분류가 실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며, 딥러닝이 가진 사회적, 실용적 가능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스터디를 통해 우리는 AI 기술에 대한 한 걸음 더 나아간 도전과, 그 과정에서 얻은 소중한 인연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